

65차 총회 앞두고 각종 준비사항 점검

64차 총회 제10회 임원회

교단 64차 총회 제10회 임원회가 지난 4월 14일 (목) 오전 11시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65차 총회를 앞두고 각종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무 김병목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재무 김종연 목사의 기도, 총회장 진동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진목사는 제2:10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한 회기동안 헌신한 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해 준 것”을 감사드리고 “항상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강조하고 임원들을 축복했다.

총회장 진동용 목사는 “교단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할 것”을 청하고 뜨겁게 헌신되어 기도하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당부했다.

예배 후 곧바로 이어진 회의는 서기 이인규 목사의 회원점명, 부총회장 조원익 목사의 개회기도, 의장 총회장 진동용 목사의 개회선언, 보고서항으로 총무보고가 이어져 전국교역자국 총계성립총만수련회,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 모인 등의 교단업무사항이 보고되었으며 회계보고로 재무 김종연 목사의 교



단발전기금 납부현황, 수입보고, 회계 김종연 목사의 지출보고가 있었다.

각종 청원사항으로 교회가입 청원, 교역자가입 청원, 교역자복귀 청원, 전도사임명 청원, 교회전출입 청원, 교회주소변경 보고, 교회폐쇄 청원, 교역자유직 청원, 교역자은퇴 청원, 선교사가입 청원 등의 사항이 보고 및 결의되었다.

기타사항으로 5월 16일 개최되는 정기총회 준비

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으며, 선관위에서 임원후보자가 등록마감일까지 임후보자가 없으므로 교단헌법에 의거 정책위원회에 추천의뢰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여 행정적인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며 감사위원회와 예산위원회 모임을 5월 6일에, 전국 사모연합회 정기총회를 5월 16일에 치르고 같은 날 선교국 주관으로 해외선교사 목사안수식을 거행하기로 했다.

필리핀지방회 제25차 정기지방회 - 필리핀 앙겔레스에서

‘목상과 찬송의 중요성’ ‘선교사가 꼭 해야 할 일’ 특강

필리핀지방회 제25차 정기지방회가 지난 3월 28일(월)부터 29일(화)까지 1박 2일간 필리핀 앙겔레스 뉴웰빌리조트에서 열린 무더위 속에서도 선교의 열정으로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위로 격려하고 한 회기동안 헌신에 감사하며 교단 중경총회장 배진기 목사와 선교국장 서정복 목사의 말씀증거를 통해 은혜를 받고 새로운 한 회기를 준비했다.

이날 정기지방회의 첫날은 등록 후 개회예배에

서 선교국장 서정복 목사는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꼭 해야 할 일’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으며 곧바로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교단 중경총회장 배진기 목사가 ‘목상과 찬송의 중요성’을 주제로 은혜와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므로 선교사들은 큰 위로와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서의 귀한 사명을 자부심을 갖고 감당할 것을 다짐했으며 받은 은혜를 되새기며 더욱 복음전파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저녁식사 후 개최된 필리핀지방회 정기지방회에서는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신임원을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임원은 회장에 이용수 부회장 김화영 총무 이인규 서기 이요셉 회계 김지은 등이다

회원들은 인근 찜질방에서 교제의 시간을 가졌으며 둘째날 오전에는 선교위원장 심용재 목사를 강사로 21세기 선교전략세미나가 있었으며 선교국장 서정복 목사의 폐회예배 설교로 양일간 정기지방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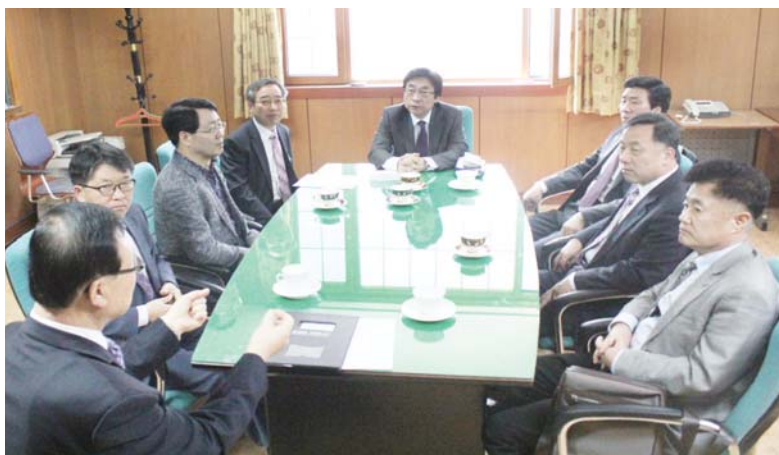
헌법에 의거 임원후보자 정책위원회에 추천 의뢰 결의

교단 선거관리위원회 2차 모임

교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인찬 목사)는 지난 4월 5일(화) 오전 11시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65차 총회 임원선출과 관련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임원진 구성을 위해 관련 규약에 따라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위원장 김인찬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어 권우석 목사의 기도, 김인찬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행8:4-8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종이 선출되기를 간구하고 이를 위해 기도를 당부했다.

곧바로 이어진 회의에서는 서기 정희섭 목사의 경위보고를 통해 지난 3월 31일까지 임원 임후보자가 없음으로 헌법에 따라 정책위원회에 추천을 의뢰하기로 결의했다.



프루도초장은
바람을
스피네

조용목목사

‘믿음을 가진 사실로 인한 행복’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 11:1~3)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믿음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명쾌하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매우 깊고 광범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상 동안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배움으로 이해의 폭을 넓히어야 합니다.

본문은 **믿음을 정의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은 “믿음은 소망을 지탱해 주는 토대로서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 질 것을 보증해 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재하는 것임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것이다.”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 쉬고 있는 것으로 공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그 믿는 대상의 실재를 증명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출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하는 믿음은 자신에게서 비롯된 신념이나 확신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됨으로 가지게 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또한 **가장 분명하게 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가지게 되는 믿음이 우리 자신의 지성과 통찰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입지 않고 인간 스스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과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전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믿습니까? 둘째,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음을 믿습니까? 셋째, 예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으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을 믿습니까? 넷째,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로써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다섯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기를 믿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예, 믿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실로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본문에 **또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선진들’이란 히브리어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포함하여 구약 시대에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은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고 환경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같이,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여기며 행동했습니다. 그는 성도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이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본 적이 없어도 믿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여도 믿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릅니다. 현재 소유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만 소유한 것이나 다름없이 생각하고 현재 보이지 아니하지만 보이는 것같이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을 무한히 기뻐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이 결코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부흥사회 상반기 임원모임

자비량 부흥회 지역별 일일부흥회 개최 논의



교단 부흥사회(회장 신재영 목사)는 지난 4월 7일 (목) 낮 12시에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순복음복된교회 (담임 최정식 목사)에서 상반기 임원모임을 가졌다.

1부 예배에서 신재영 목사는 마 5:11~12 말씀을 통해 복음을 환타하게 하는 세력들이 활개를 치는 작금의 영적상황에서 순수한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고 비 진리의 세력들을 대적하려면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오히려 우리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상 받을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조금

도 주눅 들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고 강조했다.

2부 임원회의에서는 자비량 부흥회와 지역별 일일부흥회 개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고 하계수련회와 부흥사회 연수세미나 및 가을 산행기도회 시기와 장소에 대해 논의하였다. 회의를 마치고 나서 순복음복된교회에서 제공한 민물장어정식으로 애잔을 함께하며 각 지역별 목회현장의 다양한 정보들을 나누고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총회신학교 후원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후원회

계좌번호 농협 302-0928-2103-51 / 예금주 임종달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토의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남북교회위 워크숍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백남선 목사) 남북교회위원회 위원장 배필호 목사)는 지난 3월 30일(수) 제1회 워크숍을 갖고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 및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초빙강사인 엄종식 전 통일부 차관은 발제를 통하여 현 통일정책과 이에 따른 국제환경은 북한 4차 핵실험 및 중장거리미사일 발사시위에 따른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국면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따라 5.24조치를 통하여 대북교류협력중지를 실시하는 중에도 개성공단만큼은 유지를 하였으나 이번에는 전면적 중단을 하였고 미국, 중국 등 국제적인 제재의 강도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여진 상황을 맞보았다. 제재를 통한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내는 것은 앞으로의 중국의 제재 역할에 따른 것임을 설명했다.

통일을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교회가 북한과 통일에 대한 진지한 이해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북한의 분단의 기간



이 70여 년이 지난에 따라 이질화가 큰 점이 가장 문제가 되기에 정례 연구모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마지막 선교지임을 인식하고 회중들 앞에서 기도에도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28,000여 명의 탈북자 대상 선교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질의 및 토의에는 한국의 핵보유에 대한 의견, 그리고 노장년 세대와 달리 청년세대

의 통일문제에 대한 무관심 혹은 부정적 생각들에 대한 문제점 극복 등을 논의했다.

한장총 남북교회위원장 배필호 목사는 “통일은 우리 시대의 사명이고 교회가 앞장서야 할 일로서 이번 워크숍은 전문가를 통해 배우고 뜻을 모으는 시간을 갖게 된 점에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연구모임을 정례화할 것”을 제안하여 5.18일 제2차 워크숍을 실시하기로 했다.

제3대 원장 박재윤 장로 취임 감사예배

한국기독교화해증재원, 화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 다짐



한국기독교화해증재원(이사장 피영민 목사)은 설립 8주년을 맞아 지난 4월 19일(화)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제3대 원장 박재윤 장로(전 대림관) 취임 감사예배를 드리고 교회 및 그리스도인들의 공식적인 분향해결기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감사예배는 조경식 장로(침례이사)

의 기도, 오준수 변호사(운영위원)의 성경봉독에 이어 나경임 목사(인천주안장로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나 목사는 마 16:13-20 말씀을 본문으로 ‘베드로의 신앙완성 과정’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서로 이해와 양보를 통해 하나 되는 한국교회가 될

것을 당부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이날 취임사를 전한 박재윤 원장은 “그동안 조정과 중재를 위해 무료로 봉사해주신 교계와 법조계, 법학계 협력자들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화해증재원은 한국교회와 교계에 평화와 화해를 도모한다는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교회 울타리 안에서 조정이라는 은혜로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교회와 교계의 신뢰를 다져나갈 것”이라며 화해증재원의 기능과 역할을 교계의 기관·단체와 교단에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날 이사장 피영민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화해증재원의 변호사들은 신앙과 법률지식을 겸비하여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화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것”을 밝혔다.

CTS 창사 21주년 특별모금생방송 ‘CTS WEEK’

청년 CTS, 다음세대를 위한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순수복음방송 CTS기독교TV(회장 김경철, 이하 CTS)는 부활절인 지난 3월 27일 하루 전체 평균 시청률 0.233%β, 27. TNmS 제(공)를 돌파하며 케이블TV 전체 132개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아날로그 케이블은 9위, 디지털케이블은 13위를 기록하며 종합 12위의 기염을 토했다.

이날 <생방송 2016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와 <생방송 2016 천안시 부활절 연합예배>를 비롯해, CTS앱을 통해 <이스라엘 현지 부활절 예배>가 중계되는 등 특집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목회자들의 부활절 설교 메시지가 전파를 탔다.

CTS 김경철 회장은 “기독교의 최대 축일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절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고자 한 성도들의 시청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방송사이니 만큼, 시청자들의 요구에 따라 한국교회 실정에 꼭 필요한 콘텐츠를 제



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CTS는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 채널역량평가와 SkyLife 방송채널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에 선정됐으며 2013년 24시간 방송되는 종교채널 중 시청률 1위를 차지했고, 창사 20주년 특집다큐멘터리 “끝나지 않은 사랑의 기적, 장거리”는 방심위 선정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을 수상했다. 또한 한국교회 대표 간증 프로그램 ‘내가 매일 기쁘게’와 섬김과 나눔 프로그램 ‘7000 마라톤’ 등 CTS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한편, 다음세대를 세우는 미디어 선교 CTS는 4월 25일(월)부터 29일(금) 주간을 ‘CTS WEEK’로 선포하고, 매일 3시간 동안 생방송을 진행하여 시청자들에게 말씀과 은혜가 가득한 특별한 주간을 선물한다. 세계를 교구 삼는 CTS의 복음전파 사역을 위한 말씀과 중보기도 시간을 갖는 등 CTS 사역에 동참할 동역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CTS는 각 지역 케이블과 SkyLife 183번, IPTV(KT QOOK 236번, SK BTV 551번, LG U+180번), 해외위성, CTS APP을 통해 전 세계에서 시청할 수 있다.

한국교회에 ‘장애인 주일’ 지켜줄 것 요청

한장선총, 장애인용어도 올바르게 사용하자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회장 윤형영 목사, 이하 한장선총)는 지난 4월 8일 오전11시 한국기독교회관 에이레네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의 모든 교회가 장애인 주일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고 장애인 용어에 대한 올바른 사용을 통해 장애인들이

상처와 편견 없이 복음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한장선총 회장 윤형영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아직도 많은 교회에서 장애인 주일을 잘 지키고 있지 않음은 물론, 장애인을 비하



하거나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장애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음 귀한 존재임을 인식해 상처와 편견 없이 복음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이 관심을 갖자”고 당부했다.

한장선총은 이날 성경의 부적절한 장애인 용어로 중풍병자, 귀머거리, 앉은뱅이, 문둥병자 등을 제시하고 이를 뇌병변 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한센인으로 사용하라고 요구했다. 장애인주일은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이 지난 첫 주일(올해의 경우 4월 24일)이다.

한편, 동 연합회는 기독교 신앙에 입각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도모하고 효과적인 장애인 선교를 위해 청정한 전문선교단체연합회로 교회와 장애인 선교기관과의 일치를 이루어 내는 기독교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WBH-몽골 세를렉대학교, MOU 체결

뷰티산업교육센터 설립과 뷰티전문인 양성 위해

국제뷰티구호개발 NGO 월드뷰티웁츠(WBH:회장 최에스더)는 몽골 세를렉대학교(총장 이현구) 및 한국몽골경제지원협의회(회장 김동근)와 함께 지난 3월 31일 오전 11시 울란바토르 세를렉대학 총장실에서 K-뷰티를 통한 몽골의 뷰티산업 인재양성과 전문기술교육 훈련을 위해 대학에 뷰티산업교육센터와 산업체인 WBH뷰티아트센터 설립 등 뷰티전문인 양성을 위한 한몽골뷰티산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은 몽골의 뷰티분야 우수학생들에게 한국유학의 기회와 졸업생들에게 뷰티전문 위탁교육 등 몽골뷰티산업 발전과 지지를 위한 직업 창출과 함께 몽골뷰티서비스 발전을 위해 K-뷰티산업기술 이전과 지원으로 양국의 우의와 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월드뷰티웁츠 장현일 이사장, 세를렉 대학교 이현구 총장, 몽골법



인인 한몽지협 김동근 회장이 서명했다.

월드뷰티웁츠는 지금까지 서울역을 비롯한 노숙자 뷰티서비스 활동과 베트남 주권인 뷰티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베트남에 뷰티교육훈련센터 설립 계획을 추진 중이다. 월드뷰티웁츠는 K-뷰티 해

어메이크업, 피부네일, 화장품 등 5대분야 전문교수와 기관대표로 구성되어 저개발국가의 뷰티산업발전과 국내 다문화와 북한동포 복거노인 한부모가정노숙자 등 어려운 소외 계층에도 뷰티서비스를 전문으로 지원하고 있는 국제뷰티구호개발 NGO단체이다.

총회연금재단 정상화 첫발 내딛어

이사진 개편과 정관 및 규정도 재정비

예장통합 총회연금재단(이하 총회 연금재단) 전 이사들의 총회 결의 불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사무실 이원화 등의 어려움을 겪었던 총회 연금재단이 정상화의 첫 발을 내딛으며 총회 결의 시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총회 연금재단은 제10회 총회 시임기가 종료된 4인 이사에 대한 결의를 재확정하며 전 이사 9명을 해임하고 신입이사 7인을 공천하였다. 이에 급려 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의 임시이사 파송 요청 허락 판결을 근거로 2월 11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242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총회 공천에 의해 파송된 총 7명에 대한 이사를 선임, 총회연금재단 신입이사회를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2월 29일 총회 연금재단 회의실에서 총회 임원회 주회로 업무정상화 예배가 열렸으며 다소 지체되었던 제10회 총회

결의 후속조치 실행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총회는 이번 사태를 겪으며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 되지 않도록 총회 연금재단의 정관 및 규정을 재정비하여 제도 점검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이튿날 지난 3월 22일 총회 연금재단은 제246차 이사회에서 3월 17일 사직서를 제출한 손석도 이사의 사직 처리와 조준래 이사의 임기 종료 사임 처리 및 제10회 총회 결의대로 공천된 홍승철 목사와 박재호 장로를 후임이사로 선임 결의하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이사진을 구성하였다. 또한, 3월 28일 총회, 총회연금재단 이사회, 연금지임사회로 구성된 기금위탁운용을 위한 1차 컨소시엄 위원회를 출범하며 총회 결의 이행을 위한 기금위탁운용의 첫 시작을 알렸다.

총회 연금재단은 컨소시엄을 통해 위탁



운용사 선정 과정, 위탁운용 진행 과정 등 중요한 절차 및 투명성과 안정성의 바탕위에 체계적 위탁운용 제도의 틀 마련이 가능케 되었음을 밝혔다.

위탁운용사의 위탁운용 시행은 우수한 수익성을 추구하고, 투자 의사결정 및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을 위원함으로써 안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 기업지의 신뢰 회복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 된다.

성령충만운동 통한 한국교회의 변화와 개혁 도모

“다양한 문화매체 활용 전도, 훈련”... 성령충만 세미나 개최

갈보리영성훈련원(원장 권오덕 목사)은 지난 7일(목)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국교회 백주년기념관 제3연수실에서 성령충만을 위한 영성핵심세미나를 개최하고 훈련한 이 시대에 성령충만운동을 통한 한국교회의 변화와 개혁,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더욱 기도와 말씀전파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배용한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이명희 목사의 기도, 김은지 목사의 성경봉독, 김영식 목사(푸른초장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왕상 19:9-10 말씀을 본문으로 ‘차만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겸손히 주를 섬기는 사역자들이 다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되기를 당부했다.

이어 이명희 목사의 한글기도, 김명화 목사의 감사기도, 훈련원 원장 권오덕 목사의 인사말, 대가홍 이선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곧바로 이어진 세미나는 1강의 시간으로 이선 목사가 말씀을 선포했다.

이선 목사는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할 일은 전도, 교제, 제자훈련이며 이를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다양한 문화매체를 통해 잘 활용되게 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사명감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상황적리더십, 카리스마리더십, 변형자리더십, 봉사자리더십, 수파리더십 등의 리더십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함을 역설했다. 계속해서 강준오 목사의 생명의 축복, 도전의 말씀이 이어져 참석자들 모두는 큰 도전을 받고 믿음의 각오를 되새겼다.

노인복지협, 제181회 조찬기도회

국가와 민족, 지도자 위해 기도



한국노인복지선교협의회(대표회장 조지현 목사)는 지난 4월 8일 오전7시 여전도회관에서 제181회 조찬기도회를 가졌다.

1부 예배는 양재규 목사(예장대신 목회대

학원장) 사회로 김원삼 목사(경원교회)의 기도, 엄금자 전 호서대 교수의 성경봉독, 배정애 전도사의 특송, 심재선 목사(사. 자유대학)가 특별기도를 인도한 후, 김일중 목사의 봉한기도 등의 순으로 마쳤다. 2부 주제발표 및 토의시간은 대표회장 조지현 목사의 사회로 김홍석 목사(전 러시아 공사)의 대표기도, 조기상 전 국회의원의 특강, 조지현 목사의 성사강독, 김동원 목사(시장 증경총회장)의 부활절 판소리, 조광열 목사(연세대 외래교수)·박서영 법무사의 격려사, 김동철 선교사의 모노드라마 공연, 김중석 목사(한민족

독도포럼 대표)의 조찬기도 순으로 마쳤다.

언행일치, 기도에 힘쓰는 능력있는 사역자

전라지방회

전라지방회(회장 김영식 목사)는 지난 4월 12일(화) 광양은혜와진리교회(담임 최형택 목사)에서 월례회를 개최하고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지방회 총무 정찬식 목사의 사회로 김영자 목사의 기도, 지방회장 김영식 목사의 설교, 증경지방회장 김갑신 목사의 기도와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민 23:8 말씀을 본문으로 '약인의 유혹'이라는 제목의 설교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서 언행일치가 되고 품격이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하며 또한 우리의 영적 지원인 기도로 응답받아 능력있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당부했다. 설교 후 한광훈(여수 선교중앙교회), 박미



경(여수 순복음은종교회) 두 사람에게 대한 전도사 임명장 수여가 있었고, 증경지방회장 왕상열 목사의 인사말(무안 순복음은혜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게 됨)에 이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 다음 달에 있을 교단 총

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했다. 증경지방회장 김갑신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열린 월례회에서는 지방회장 김영식 목사의 사회로 각종 회무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정기지방회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광주지방회

광주지방회(회장 김영인 목사)는 지난 4월 5일(화) 오전 11시 목양제일교회(담임 김영인 목사)에서 제56차 정기지방회를 개최하고 한 회기동안 지방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임원진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한 회기를 섬기게 될 일꾼들을 선출했다.

지방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총무 최정식 목사의 사회로 부회장 장영기 목사의 기도 후 회장 김영인 목사가 녹 9:57-62 말씀을 중심으로 "정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손에 정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지는 사역에 충실하지 못한 자라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사역에 힘쓰면 성령께서 감동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전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이어 "나라와 민



족을 위해" 증경회장 김인복 목사, '총회와 지방회를 위해' 증경회장 김정식 목사가 각 주체별 기도를 인도한 후, 조은주 목사의 헌금기도, 증경회장 주덕영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진 정기지방회에서 임무보고와 회부처리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새 임원을 선출했다. 회장 김영인 목사(목양제일

교회) 부회장 장영기 목사(순복음영남교회) 총무 최정식 목사(순복음복된교회) 서기 배영래 목사(순복음엘림교회) 회계·재무 조은주 목사(순복음집중은교회), 이어 지방회에서 준비한 우산꽃이를 각 교회마다 증정하고 목양제일교회에서 섬겨주신 풍성한 오찬을 나누며 행복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정기지방회 성령님께 쓰임받는 사역자의 자세 강조

전북서지방회

전북서지방회(회장 고현진 목사)는 지난 3월 29일(목) 군산 새벽별교회(담임 고현진

목사)에서 정기지방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한 회기동안 지방회를 위해 헌신할 신 임원진을 선출했다.

이날 모임에 앞서 드린 예배는 지방회 총무 양희철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김바울 목사의 기도, 지방회장 고현진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고 목사는 행 20:22-25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께 매일 받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함께하셔서 우리들을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는 자세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다 될 것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증경회장 김철성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친 후 곧바로 정기지방회를 열고 각종 회무를 처리한 후 신임임원진을 선출했다. 이밖에 선출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 김중곤 목사, 1부회장 박상규 목사, 2부회장 양영석 목사, 총무 양희철 목사, 서기 김훈배 목사, 재무·회계 심혜원 목사



정기지방회 땅 끝까지의 복음전파 사역감당 최선 다짐

경남지방회

경남지방회(회장 권우석 목사)는 지난 4월 4일(월) 오전 10시 30분 은혜와소망교회(담임 윤기석 목사)에서 정기지방회를 개최하고 한 회기동안 지방회 발전을 위해 회원들을 섬기고 헌신한 임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하고 각종 회무를 처리한 뒤 신임 임원진을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지방회 총무 류지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황용연 목사의 기도, 지방회장 권우석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권 목사는 요 21:15-19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의 목양평령'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주님께서 명하신 땅 끝까지의 복음전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목회자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증경지방회장 김창영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정기지방회가 열려 각종 회

무를 은혜 가운데 처리하고 신임임원진을 선출했으며 이밖에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황용연 목사 부회장 류지석 목사 총무 광국섭 목사 서기 윤성수 목사 재무 류성진 목사 회계 신동철 목사

정기지방회 복음전파에 전력을 다하는 교회

강원동지방회

강원동지방회(회장 유홍렬 목사)는 지난 4월 8일(금) 오전 11시 원주은혜와진리교회에서 정기지방회를 개최하고 한 회기를 결산하고 새롭게 설립된 임원진을 선임했다.

이날 정기지방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정주영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박규희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유홍렬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유 목사는 마 28:18-20 말씀을 본문으로 '갈릴리로 가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무엇보다 복음전파를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전파에 전력을 다하는 교회가 될 것"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최정희



목사의 헌금기도, 김종덕 목사의 광고, 교단 증경총회장 김용덕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곧바로 이어진 정기지방회에서는 각종 회무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한 회기동안 지방

회를 위해 섬길 새로운 일꾼들을 선출했다.

회장 유홍렬 목사(열린교회) 부회장 진장길 목사(성지순복음교회) 총무·서기 최정희 목사(성광교회) 회계 이성은 목사(진부제일교회)

순복음열린교회, 권사취임식 및 집사안수식

강원동지방회

강원동지방회(회장 유홍렬 목사) 순복음 열린교회(담임 유홍렬 목사)는 지난 4월 2일(토) 오전 11시 강원도 영월 동교회 대성전에서 권사취임식 및 집사안수식을 거행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돌렸다.

이날 취임예배는 지방회 총무 진장길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증경지방회장 엄기소 목사의 기도, 서기 최정희 목사의 성경봉독, 열린교회 중창단의 찬양, 교단 증경총회장 이창제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 목사는 고전 4:1-6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에 실망시키지 말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직분자로서 맡은바 직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당부



부하고 귀한 직분을 받는 제직들을 축복했다.

취임식은 열린교회 담임 유홍렬 목사의 집례로 서약, 서약기도, 공포, 권사취임, 집사 안수증서 수여가 이어졌으며 구학림 목사(영월읍연합회장의 축사, 증경회장 박순웅 목사의 권면, 나경숙 권사의 답사, 임직자 대

표 김형대 안수집사의 기념품 증정, 담임 유홍렬 목사의 광고, 증경회장 강내봉 목사의 축도로 취임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임직자들은 열린교회와 든든히 세워가도록사명감당을 위해 더욱 기도하며 충성과 헌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정기지방회 “말씀대로 행하는 사역자될 것” 다짐

경기중앙지방회

경기중앙지방회(회장 최철민 목사)는 지난 4월 4일(월) 오전 11시 순복음제일교회(부회장 임흥택 목사)에서 정기지방회를 개최하고 한 회기동안 헌신한 임원진을 격려하고 신임임원진을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지방회 서기 윤두환 목사(호평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회계 유석구 목사(에베다순복음교회)의 기도, 증경회장 조남영 목사(기평순복음교회)의 설교로 진행되었다.

조 목사는 고후 12:7-10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뭉치 말고 깨달아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주의 종이 자유함을 누릴 때 성도들이 동일한 은혜를 받을 것임을 강조하고 이 믿음 위에 살면 목회현장에서 힘이 나고 성도들도 행복해지며 목양자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임"을 선포하였고, 지방회 모든 회원들은 은혜로운 말씀에 이면으로 화답하였다.

이어 재무 신근철 목사(순복음예수생명교회)의 헌금기도와 조남영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사전촬영 후 열린 정기지방회 회부처리



는 부회장 임흥택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어 지난 회기의 결산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임원들의 보고자료를 신도하며 문서로 받치는 동의를 나와 회원 모두 찬성함으로써 은혜롭게 진행되었다. 이어서 안건토의로서 지방회의 친목과 단합을 위하여 불철야유회를 가질 것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새로운 회기를 이끌어 갈 회장 및 임원 선출에 조남영 목사가 선거위원장으로 전개되어 투표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경회장단의 추천으로 임원을 선출하지는 의견을 내 놓았고 모든 회원들이 이에 동의하여 회장에 임흥택 목사(순복음제일교회), 부회장에 유

석구 목사(에베다순복음교회), 총무에 윤두환 목사(호평순복음교회), 서기에 신근철 목사(순복음예수생명교회), 회계에 김순형 목사(아침빛순복음교회), 재무에 이봉기 목사(보리울교회)가 각각 선출되었고 회원들은 박수로 환영함으로써 정기지방회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어서 순복음제일교회(담임 임흥택 목사)에서 정성껏 준비한 애찬을 함께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 꽃을 피웠고 불철야유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만남의 시간을 약속하며 서로의 목회지로 향하였다.

경기중앙지방회

경기중앙지방회(회장 최철민 목사)는 지난 4월 1일(금) 오전 11시 순복음바리보교회(담임 선남규 목사) 창립예배를 드리고 지역 사회 복음화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서기 윤두환 목사(호평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회계 유석구 목사(에베다순복음교회)의 기도, 증경회장 조남영 목사(기평순복음교회)의 설교로 진행되었다.

조 목사는 마 25:14-23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귀한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미래가 있다. 반드시 승리한다"고 전제한 후 "본문 말씀에 나오는 주님을 기쁘게 한 종들처럼 순복음바리보교회와 목사님의 사역이 그러함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 목회자에게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교회의 부흥요인은 환경과 물질과 돈은 손잡이 아니라



목회자의 투철한 사명감이다.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과 각으로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것과 둘째로, 뿌리고 투자하는 목회가 되길 바란다.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고, 요행을 바라지 않고 열심히 전도하며 여러 영혼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투자를 아끼지 않고 나아가면 반드시 교회는 부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임"을 피력하였고, 아울러 "장립을 축하하기 위해 원근각지에서 오신 동역자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지속적

인 기도를 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조남영 목사의 창립선포와 김달원 목사(순산주만교회 은퇴목사)의 축사, 지방회 부회장 임흥택 목사(순복음제일교회)의 권면이 있었고, 재무 신근철 목사(순복음예수생명교회)의 헌금기도, 담임목사인 선남규 목사의 인사말씀과 광고가 있었으며 조남영 목사의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쳤다. 특히 이날 예배에는 국악 찬양선교사인 김영순, 조한민의 신명나는 국악 찬양이 더해져 은혜롭고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었다.

목양자의향

서헌철 목사 // 장로교신학 학장, 장신교회 담임

성도(聖徒)다운 생활의 은총을 누리자

오리겐의 삼위일체론 등은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내용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따라서 그를 “이단인가?”, “대중적 플라톤주의 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대에도 중요한 신학적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그가 정통기독교 위에 자신의 신앙의 토대를 세우기 위한 열정을 발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온 생애를 바쳐 전적으로 헌신 봉사했으나, 거의 전적으로 플라톤주의 철학의 영향 아래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다.

또한 오리겐에게 있어서의 구원의 본질이란 하나님처럼 되는 것, 즉 하나님을 관상(觀想)함으로써 ‘신성한’ 존재로 변화하는 것, 인간 영혼은 변화하는 이 세계에서 존재의 영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등, 지식을 갖춘 그리스도인은 지상의 예수를 넘어 영원한 말씀에 이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관상함으로써 구원을 성취한다는 것이 오리겐의 구원관이었다. 이러한 구원 개념은 철저하게 성경적 기독교보다는 영지주의 안에서 더 일반적이었던 것이었다.

또한 구원의 과정을 타락의 반전으로 보아, 이성을 가진 모든 존재들이 다시 하나님을 관상함으로써 완성된다 등을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 속에서도, 오리겐에게 가르침

을 받은 이방인 ‘플루타르코스’역사가 플루타르코스와의 다른 사람’는 가르침 받은 신앙대로 순교 했으며, 오리겐도 그의 생명이 다 할 때까지 동행하였다고 전하며, ‘헤라클리우스’도 세속적인 생활에서 떠나 성결 생활에 전심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구속되어 법정에 끌려 나갈 때에나, 그가 사형장으로 끌려 나갈 때에도 오리겐은 이들 순교자들과 조금도 꺼리는 일 없이, 함께 해 줌으로 위함을 자취하곤 했다.

대담한 그의 태도에 군중들은 수차례에 걸쳐 그를 돌로 쳐 죽이려 했다. 그들은 그가 다수인에게 신앙의 원리를 가르쳤다는 이유로 인하여 단체까지 조직하여 대적하는가 하면, 그가 살고 있는 집 주위에 군인들을 배치하기도 하였을 정도였으며, 그에 대한 박해는 날로 더욱 흉악해져, 그는 이미 저리 쫓겨 다니지 않으면 안 되었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 지역에는 그가 머물 곳이라고는 한 곳도 없었다. 그러나 그의 그러한 경건한 일상생활, 그리고 행동은, 많은 이들을 감동케 하여, 신앙의 길로 돌게 하기도 하였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의 가르침은 그의 생활 그 것이고, 그의 생활은 그의 가르침 그 것이다”라고(출처 = 기독교순교사)

그러면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일까? 바른 교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바른 교리 못지않게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의 은총을 누리야 하지 않는가? 예컨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먼저 법의 적용이 엄격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있으며, 자신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지!”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제아무리 옳은 주장, 바른 교리가 세워진 다한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이단자들이나 제도권 밖에 있는 이들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이나 이를 배척하는 이들보다 나은 것이 없다면 그 누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진정성을 받아들여,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려 하겠는가? 따라서 이 세대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리매김을 해야 할 것은 ‘마이크 호튼’의 말한바 “교리는 살아있다”함과 같이 바른 교리가 있다면 성도(聖徒)다운 생활의 은총도 누리야 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전 2:16)



목양자의향

문찬우 목사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호수아교회 담임 목사, 캐나다 Pacific Life Bible College 졸업 (M. A.), 한세대학교 목회학석사 졸업 (M. Div.), 호서대학교 신학박사 졸업 Th. D), 홍익대학교 광고홍보 대학원 과정중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 사람의 자세

(골 3:11)

“아아, 목사님! 제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눈부셨는지 모르실 거예요. 윤기가 나다 못해 물결처럼 출렁이는 머릿결에 희고 투명한 눈빛,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영롱한 푸른 눈동자까지!” 언젠가 목사실에 들어와 자신이 기도 중에 만난 예수님에 대해 간증했던 한 형제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의 간증은 제게 큰 감동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찾아오기 전에 봤던 한 장의 그림 때문입니다. 그 그림은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 법의학과 리처드 니브(Richard Neave) 교수가 이스라엘 고고학자와 공동으로 연구하여 복원한 예수님의 상상으로였습니다.

니브 교수 팀은 갈릴리 호수 인근에서 발굴한 약 2000년 전 섣족 남성들의 두개골 세개와 당시의 풍습에 대한 연구 등을 바탕으로 컴퓨터단층촬영과 디지털 3D 기법을 이용해 예수님의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니브 교수가 복원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매력적인 백인(白顔)의 미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검은 곱슬머리에 어두운 톤의 피부와 가진 평범한 중동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 서른 살까지 부친을 도와 목수로 - 보통 실외에서 집을 지으며 - 일하셨던 예수님의 피부가 백옥 같았을 리 없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AD 4세기경의 비잔틴 문화 때 처음 그려졌다고 합니다.) 중동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유럽과 미국을 거쳐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된 종교사적 경로를 생각하면 그 형제의 예수님 모습에 대한 고정관념을 이해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자리하는 예수님의 육체적 형상은 한마디로 ‘서구화된 그리스도(westernized Christ)’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 문화의 서구로의 편중은 교회 미술만이 아닌 교회 음악에도 존재합니다. 대다수가 서양 종교화(宗敎畵)의 영향으로 예수님을 백인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 음악 역시 서양의 클래식 음악의 한 갈래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양의 클래식 음악이 어떤 음악보다 더 교회 예배에 적합한 것이라는 편견도 실재합니다. 그래서인지 한국교회에서 한국의 전통 음악은 어딘지 이질적인 무엇처럼 여김 당하며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 음악에 담은 우리의 찬양을 접할 기회가 드문 이유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

심지어 일전에 만난 한 국악인은 제게 이런 심정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기독교인들 중 많은 이들이 우리의 음악을 미신적, 그러니까 사피니즘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 형편이에요”

우상숭배란 다름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편협한 이미지 속에 가두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문화로든, 어떤 컬러로든, 어떤 음계로든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당신을 높이는 문화적 장르가 다양할수록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다양성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증거니까요.) 그러나 어떤 문화도, 어떤 컬러도 어떤 음계도 예수님을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개인이나 민족이나 문화나 시대가 독점할 수 없는 ‘우주적 그리스도(Universal Christ)’ 이시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아인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골로새서 3장 11절의 말씀,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려는 사람이 지내라 자제합니다.

‘소외노인’ 의료봉사 통해 사랑의 인술을!

유니크펠닥터스, 쪽방촌 소외노인 대상 진료

유니크펠닥터스(Unique PEARL Doctors)는 지난 4월 2일(토) 오후2시 서울 영등포 광야교회에서 영등포 쪽방촌 동중 및 내과 질환으로 고생하는 소외노인 약70명을 대상으로 통증진료 급성 통증환자, 내과환

자 통증의학과, 내과, 진료상담, 혈액검사를 실시했다. 이날 진료 및 자원봉사에는 총14명이 참여했다. 의료진으로는 유박영 유니크펠닥터스 회장(엘에이징센터 청박병원 원장)과 유형준 한강성심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원영준 카톨릭관동대 내분비내과 교수, 정성수 정성수내과의원 원장과 김정은(분당 차병원 간호팀장), 김영옥(분당 차병원 간호팀장) 고향미(분당 차병원 간호팀장), 김보배(분당 차병원 간호사) 박소윤(분당 차병원 간호사), 주정화(분당 차병원 간호사) 진혜송(엘에이징센터 간호사) 등이 의료분야에 참여했으며 행정과 진행에는 장한일 원장(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월드뷰티헬스 이사장)과 조성지 이사(청박병원)와 윤동섭 팀장(청박병원)이 참여했다.

진료장비로는 혈액계, 청진기(엘에이징센터) 체중계(차병원 간호과) 초음파, 주사(정성수내과)와 진료준비에 약병지, 약병, 차트, 주사, 드레싱셋, 소모품(엘에이징센터)와 당검사(차병원 간호과) 및 약품에는 송말순 차병원 간호국장이 제공했다.

유니크펠닥터스는 의과대학 교수 및 현 병원장을 중심으로 전문 의료봉사를 펼치며 소외되고 어려운 사회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사랑의 인술을 펼치고 있다.



아신대, 제2회 영어간증대회 개최

전국 고등학생 대상으로 실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선교영어학과가 전국의 크리스천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신앙을 영어로 나눌 수 있는 제2회 전국 고등학생 영어간증대회'를 오는 5월 7일(토) 경기도 양평 본교에서 개최한다.

선교영어학과는 최근 한국 교회의 중고등부 학생 수가 급감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2015년부터 영어 간증대회를 주최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전국에서 27명의 고등학생들이 지원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 바 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는 복음주의 신학 뿐 아니라 1974년 개교 이래 지금까지 영어로 수업하는 학위 과정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영어에 특화된 대학으로서 목회자와 타문화권 선교사를 다수 배출한 경험으로 이번 영어 간증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더불어 간증은 기독교



인의 신앙 성장에 도움을 주고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수단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 이번 영어간증대회는 동 대학의 경험과 취지를 잘 살린 대회라고 할 수 있다.

전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크리스천 고등학생(대한 학교 재학생, 검정고시 준비생 포함)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www.actsack에서 확인하거나 031-770-7745 (선교영어학과 조교)로 문의할 수 있다.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6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년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 용지 2매 이내)-신입생
- ⑥ 반명함판 사진 4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총회목회대학원 졸업 후 목사고시 응시자격 부여
- ④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모회 제6회 정기총회

| 일시 | 2016년 5월 16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은혜와진리교회 아가페성전

(11시부터 등록 12시 점심식사 1시 정기총회)

| 참석대상 |

사모회 임원 및 각 지방회장사모 전국사모회 회원



고문 박희숙
성문교회



고문 최혜선
다락방교회



고문 김양숙
은혜와진리교회



증경회장 김양란
안디옥교회



증경회장 차경애
진주은평교회



직전회장 김영숙
순복음거제중앙교회



회장 신동신
청신교회



부회장 차추련
안동성곡교회



총무 박경미
순복음승리교회



협동총무 최선희
순복음에수나라교회



서기 오숙희
밝은빛교회



부서기 김귀순
아세아순복음교회



회계 조정에
순복음약속교회



부회계 서수영
은혜충만교회



감사 이은숙
점심순복음중앙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사모연합회 회장 신동신 · 총무 박경미 (010-2167-7422)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평강교회 성전이전 감사예배

| 일시 | 2016년 6월 6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평강교회(담임 정석현 목사)

안성시 공도읍 아촌길 9-9(구주소 안성시 공도읍 양기리 24-2)
H.P 010-2372-0091

강사



유봉수 목사
교단 중경총회장
은혜와사랑의교회 담임

담임



정석현 목사
경기남지방회 중경회장
평강교회 담임



교사 강습회에 와서 변화되는 교사가 됩시다!!!

교사강습회 "Come & Change!"

주제 : '소망' (살전 5:8)

- ▶ 대 상 : 교회학교 교육 담당자 및 교사
- ▶ 교 재 : 책자 2,000원, 찬양CD 2,000원, 찬양울동DVD 5,000원
- ▶ 특 징 : ① 여름성경학교 활동프로그램 시연 및 자료 제공
② 새로운 찬양 울동 보급 ③ 반관리 특강

- ▶ 일 시 : 5월 21일(토), 오전 10시 ~ 오후 4시
- ▶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안산성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03)
- ▶ 전 화 : 031-233-2922 팩스 : 031-223-1793
- ▶ 이 메 일 : hello-pastor@hanmail.net
- ▶ 입금계좌 : 국민은행 670101-01-433175(한실회)

* 교단 소속교회 참석인원을 사전에 알려 주시면 좌석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육국

은혜교회,이경석 목사 은퇴·왕상엽 목사 취임

호남지방회

호남지방회(회장 김정구 목사) 순복음은혜교회는 지난 4월 15일(금) 오전 11시 이경석 담임목사와 왕상엽 취임목사의 은퇴 및 취임감사예배를 드리고 순복음은혜교회의 오늘이 있기까지 헌신해온 이경석 목사의 공로를 기리고 새롭게 취임하는 왕상엽 목사의 미래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감사예배는 지방회 총무 서베드로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사회자의 개식사, 제무 조사랑 목사의 기도, 서기 민순복 목사의 성경봉독, 순복음은혜교회 성가대의 찬양, 지방회장 김정구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행 13:21-23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목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에 다윗과 같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



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은퇴하는 이경석 목사 소개와 감사패증정과 공로패증정 후 취임하는 왕상엽 목사에게 전라지방회장의 감사패증정이 있는 후 꽃다발증정이 있었다. 취임목사 소개 후 지방회장 김정구 목사의 서약 및 치리권부여와 공포가 있었다.

권면하는 순서로 먼저 취임목사에게 지

방회 증경회장 김우만 목사가, 동교회 성도들에게 증경회장 조남연 목사의 권면이 이어졌다. 지방회장 정운기 목사의 축사와 해례기독교연합회장 박정순 목사의 축사 후 왕상엽 취임목사의 담사와 가족소개 후 은혜가 넘치는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왕상엽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기념촬영과 애잔을 함께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정기지방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회자가 될 것

호남지방회

호남지방회(회장 유영욱 목사)는 지난 4월 5일(화) 월양순복음교회(담임 김정구 목사)에서 제55차 정기지방회를 개최하고 한 회기동안 지방회발전을 위해 헌신한 임원들을 격려하고 각종 회무를 처리한 뒤 신임원진을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지방회 총무 서베드로 목사의 사회로 시작, 부회장 김성호 목사의 기도, 서기 민순복 목사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유영욱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유 목사는 롬 12:1-2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 신제사 드리는 자의 삶으로 인격이 변화되는 마음의 성전을 지키는 목회자가 되며 거룩하게



구별된 신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회자가 될 것"을 강조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의금교회 김우만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정기지방회를 갖고 각종 회무를 은혜 기운에 처리하고 신임회

장에 월양순복음교회 김정구 목사를 선출하고 그밖의 임원은 그대로 유임시켰다. 모임 후에는 월양순복음교회에서 애잔을 대접하였으며 선물로 귀한 전복장과 떡 등 푸짐한 선물을 나누어 주며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좋은나무교회창립,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 헌신

대전지방회

대전지방회(회장 정운기 목사) 좋은나무교회(담임 이만규 목사) 창립감사예배가 지난 4월 2일(토) 오전 11시 대전시 서구 정평



동 623 동교회 대성전에서 드려져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가 될 것을 다짐하는 한편 부흥하고 성장하여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이날 창립예배는 지방회 총무 이만순 목

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서기 석인권 목사(창조근인교회)의 대표기도 후 소망의 나라가 족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특송을 부른 후에 지방회장 정운기 목사(대전양무리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롬 1:16-17 말씀을 본문으로 '오직 복음으로'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복음의 능력으로 진리에 바로서서 되나 우리로 치우치지 않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말씀을 전할 것"을 권면하고 회원들을 축복하고 격려했다.

이어 지방회장 정운기 목사(양무리교회)의 창립선포와 지방회 차원의 격려금을 전달한 후 교단 총무 김병목 목사의 권면과 지구촌장로교회 김종찬 목사의 축사 및 증경지방회장 엄기설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서 기념촬영 후에 좋은나무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석갈비집에서 함께한 후 창립예배의 모든 순서를 은혜롭게 마쳤다.

정기지방회 교단과 지방회 교회부흥 위해 수고와 헌신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김남수 목사)는 지난 4월 5일(화)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양기리 24-2번지에 소재한 평강교회(담임 정석현 목사)에서 제64차 정기 지방회를 개최하고 한 회기를 결산하고 새로운 한 회기를 섬길 신임원진을 선출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1부 예배는 박흥열 목사(오성사랑교회 담임)의 사회로 김효신 목사(찬양교회 담임)의 대표기도, 지방회 사모 일동의 특별찬양, 오성사랑교회 김순기 전도사의 부제축과 함께 한 찬양공연, 지방회장 김남수 목사(맑은빛교회담임)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빌 3:17-21 말씀으로 '천국시민권'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이 땅의 육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최정용 목사(만음교회 담임)의 헌금기도, 증경회장 정석현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회의에 들어가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차기원인을 선출했다.

회장에 김기인 목사(벤엘교회 담임)가 선출되었고 부회장 신동숙 목사, 총무 박흥열 목사, 서기 김효신 목사, 회계 정미자 목사, 제무 최정용 목사, 감사에 정석현 목사와 김남수 목사가 선출되었다.

신임회장과 함께 신임, 재임으로 차기 임원을 맡게 되었다. 신임회장 김기인 목사는 인사말에서 지방회를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다할 것을 회원들 앞에서 다짐하였다.

회의를 모두 마치고 신임회장 김기인 목사의 설교로 회원들은 오찬을 함께하며 즐거운 교제와 사랑을 나누며 정기지방회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12박 13일간 약속의 땅 순례

예수님 공생애 사역 중심지 가버나움, 오병이어 기념교회, 팔복교회 순례 ... 갈릴리호수에서는 선상예배도

충북지방회 이스라엘 성지순례

충북지방회는 목회에 유익을 도모하고자 2년 전부터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위해 기도해 오던 중, 지난 3월 28(월)부터 4월 9일(수)까지 12박 13일 동안 말로만 듣던 약속의 땅을 순례하고 돌아왔다.

지방회장 최동순 목사를 중심으로 하여 소속회원 35명은 28일(월) 오전 7시 30분에 이목순복음교회를 출발하여 오후 2시 30분 대안항공편을 이용하여 다음날 이스라엘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몇 시간을 취침하고, 다시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탄불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텔아비브 국제공항에 도착, 가이드와 미팅 후 곧바로 성지순례에 들어갔다.

29일(화) 제2일 가이사라, 갈릴산, 브깃도(아마겟돈), 나사렛 마리아 수태고지교회, 요셉기념교회, 유대회당 기념교회, 가나마을 혼인잔치 기념교회를 순례했다.

제3일(수) 갈릴라지역 고라신, 하술, 탤타, 가이사라 빌립보, 바나야스폭포, 헬몬산 조망, 쿠퍼베라(산이국경 조망) 가나마을 순례했다. 제4일(목) 갈릴라지역 예수님 공생애 복음사역의 중심지였던 가버나움, 베드로 수위권교회, 오병이어 기념교회, 팔복교회를 순례하고 갈릴리 호수에서 선상예배를 드렸다.

김경준 목사의 사회로 드려진 성찬 예배에는 김수환 목사의 기도예 이어 증경회장 이동수 목사가 눅 5:1-7 말씀을 본문으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지방회장 최동순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뱃산 국경을 통과 요르단 입국 앞만



으로 이동했다. 제5일(금) 모세가 가나안을 바라보고 죽은 느보산(모세기념교회) 6세기 모자이크 지도로 유명한 마다바 성조지교회 중동의 그랜드 캐년이라 불리는 아르논 골짜기를 순례하고 페트라로 이동하여 모세가 바위를 쳐 물이 솟아났다고 전해지는 모세의 샘을 순례했다.

제6일(토) 페트라 시크길, 알카즈네신전, 로마원형극장, 호르산조망 왕들의 무덤, 나비티안유적, 세렛골짜기, 십자가의 진을 찾던 난공불락의 요새 카락성조망 소돔, 고모리를 경유하여 암만으로 귀환했다. 제7일(일) 주일을 맞이하여 회원 전원은 하나님께 먼저 주일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 김용 목사의 사회로 드려진 예배에는 오병용 목사의 기도예 이어, 증경회장 이분근 목사가 왕하 3:13-20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제목으로 설교하고 증경회장 김윤용 목사의 축도와 지방회장 최동순 목사의 인사말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알렌비 국경을 통과하여 이스라엘 가이드미팅 후 예수님 세례터 베다니순례, 삭개요 뽕나무, 엘리사 샘물, 여리고성, 시편산 조망, 시해사본이 발견된 쿨란 사해 수영, 연개미를 조망했다. 제8일(월) 이스라엘 민족의 항쟁지 밋사다, 중요한 군사 거점도시인 텔아라드, 텔 브엘세바, 셰펠라, 라기스

벤구브린, 벡세메스, 엘라골짜기, 소렛골짜기, 아일론 골짜기(저장방) 세례요한 탄생 기념교회, 엘리자벳벧분 기념교회, 야드베셀을 순례 후 베헤레헴으로 이동했다.

제9일(화) 사마리아로 이동하여 벤엘 세겜, 그리심산, 베다니나사로 무덤, 아기 예수님의 탄생지 베헤레헴으로 이동 예수탄생 기념교회, 목자들의 들만교회를 순례했다. 제10일(수) 베헤레헴 예루살렘지역의 베테스다연못, 십자가의 길, 골고다언덕 성묘교회를 순례하고 정원무덤 교회에서 수요일예배를 드렸다.

신병설 목사의 사회로 드려진 예배에는 민병훈 목사의 기도예 이어 증경회장 김윤용 목사가 빌 1:8-11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그리스도의 심장을 갖자'란 제목으로 설교하고, 김정수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이어 감람산, 승천교회, 주기도문교회, 눈물교회, 갓세마네교회, 시온산, 마가의 다락방 다윗왕의 가묘, 베드로 통곡교회, 통곡의 벽을 순례하고 베헤레헴으로 이동했다.

제11일(목) 베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여 솔로몬 물 저장고, 헤로디온, 네바시무엘, 기드온, 기혼샘, 히스기야 터널, 실로암 연못, 이스라엘 박물관을 끝으로 공식순례지 일정을 마쳤다.

제12일(금) 증경회장 김정수 목사의 귀국



기도와 버스를 이용하여 텔아비브 국제공항에서 터키 이스탄불 국제공항에 도착, 오후 늦은 시간에 이스탄불 국제공항을 출발 제13일(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성지순

례를 무사히 마치고 하신 하나님께 지방회에서 터키 이스탄불 국제공항에 도착, 오후 늦은 시간에 이스탄불 국제공항을 출발 제13일(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성지순

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 보고 배우고 깨달은 비를 목회현장으로 돌아가 주어진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할 것을 다짐했다.

성경적 목회자 자질 갖춘 목자되어야

제13회 신학세미나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합회 신학협의회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합회(대표회장 유영섭 목사) 신학협의회(회장 강용희 목사)는 지난 4월 7일(목) 오전 11시 여전도회관 루이스기념관에서 제13회 신학세미나를 갖고 성경적 목회자의 자질을 갖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성경중심의 목회를 집중적으로 조망했다.

‘성경적 목회자의 자질과 영성’이란 주제 아래 열린 이번 세미나는 신학협 회계 강진명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신학협 회장 강용희 목사의 대회사로 이어졌다.

대회장 강용희 목사는 대회사에서 세미나를 통해 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지 못한 목회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회개의 영을 함입어 쫓대를 향해 나아가 재부흥의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다.

이어 특별기도로 ‘이번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이번 애종연이 되게 하소서’, ‘이번 총회가 되게 하소서’, ‘이번 신학교가 되게 하소서’, ‘이번 교회가 되게 하소서’ 라는 주제아래 노영배 목사, 이하영 목사, 구호준 목사, 박영임 목사, 조정임 목사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다.

사회자의 성경봉독 후 애종연 사무총장 반정음 목사의 강사소개, 애종연 공동회장 심민섭 목사의 말씀 증거 순으로 이어졌다.

심 목사는 답후 2:24-26 말씀을 본문으로 ‘성경적 목회자의 자질과 영성’이란 제목의 말씀증거를 통해 “지금도 목회자들 속에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면서도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하고 “성경적인 목회자의 자질과 영성을 겸비한 참 목자들로 거듭나기 위해 회개하고 각기 목회현장에서 삶 속에서 말거진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되



한국교회의 제 모습을 되찾게 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당부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신학협 부회장 임윤임 목사의 한글기도, 총무 남상봉 목사의 광고 대표회장 유영섭 목사의 축도로 세미나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회원들은 한국교회의 현실

을 보면 실망감을 감출 수 없지만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처한 모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부족한 자신을 회개하고 교회의 제 모습을 찾는데 주력하므로 한국교회를 회복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할 것이라는데 입을 모으고 이 일을 위해 나 자신부터 그 소임을 감당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벤엘추모공원 사무실 개소예배 드려

한국기독교계 장례문화 선도 다짐

벤엘추모공원(이사장 홍정선 목사)은 지난 4월 15일(금) 오전 11시 영등포구 양평동 아이에스비즈타워 1301호에서 사무실 개소예배를 드리고 한국사회의 장묘문화 변화와 한국기독교계의 장례문화를 선도하고 건전한 기독교장례문화의 정착을 위해 비전을 펼쳐 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장고신 개혁 김선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개소예배는 박한근 목사의 대표기도, 성경신학대학 원대학교 전 총장 노월수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노 목사는 창 28:13-19 말씀을 본문으로 ‘벤엘의 축

복’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타점이 된 벤엘처럼 벤엘추모공원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창대케 되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한국기독교계의 장례문화를 선도할 뿐 아니라 한국사회와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복된 기관이 될 것을 당부하고 벤엘추모공원의 변顔を 기원했다.

이어 서울고려신학 신학대학원 학장 홍연표 목사의 축사와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벤엘추모공원은 오는 5월 12일(목) 가평 건축현장에서 기공 감사예배를 드리고 한국기독교계의 장례문화의 정착을 위한 추모공원 건립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새사랑축복부흥세미나 성료

조광동 목사, 사랑으로 개혁하자 강조

새사랑개혁운동세계본부(대표 조광동 목사)는 지난 4월 7일(목)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여전도회관 14층 강 의실에서 ‘새사랑축복부흥세미나’를 개최했다.

“사랑으로 영혼 잘 되고 사업 잘 되며 건강한 복을 받자”라는 주제 아래 열린 세미나에서 조광동 목사는 “하나님께나 이웃이나 또는 자신에게 이르기까지 분노는 해로운 것으로 이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말하고, “사랑의 종교인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사랑을 배우고 익혀서 이웃사랑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 목사는 계속해서 “사랑은 건강의 묘약으로 만성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도 큰 도움이 되며 인성교육에도

더없이 좋다”고 강조하고, “초·중·고 및 대학교에서도 사랑학과를 두고 가르쳐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사랑의 나라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조 목사는 끝으로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되며 이러한 가정의 화목은 바로 사랑에서 온다”며, “사랑의 필요와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개혁되어 서로 사랑하는 나라, 경제대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새사랑개혁운동세계본부는 이날 세미나에 이어 10일에는 대구에서도 개최했으며, 오는 5월 9일부터 11일까지는 김천예수원에서도 조광동 목사를 강사로 하여 세미나를 갖는다.



2016 한부모가족 환한 미소 사진전시회

장현일 목사 리더십 특강

K-한류와 함께 K-뷰티를 통한 다문화, 북한동포, 노숙자,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과 사회소

외계층을 비롯 아시아와 아프리카 저개발국가 소외 계층을 사랑과 나눔으로 섬기는 5대미용분야(헤어, 메이크업, 피부, 네일, 화장품) 전문교수들과 현장전문가를 중심으로 섬기는 국제뷰티구호개발NGO “월

드뷰티웍스”(회장 최 에스더 교수)는 비전코리아 29(대표 김광웅 작가)와 함께 4월 16일(토) 오후 4시 신촌우리 갤러리에서(김연태 목사)에서 서울시 한부모 가족을 위해 사진전시회를 개최하고 3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지난 3월 19일 신촌우리 갤러리에서 개최한 “2016 한바탕 웃음진 한한미소를 찾아 드립니다” 행사에서 촬영한 한부모 가족 사진 컨테스트를 심사한 한국사이버박물관연합회(회장 장현일 목사)는 대상 및 우수상 등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장현일 목사(생명나무교회)는 ‘소통 리더십’ 주제 특강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자녀와의 입술 언어가 아닌 기도하는 마음의 가슴과 신앙의 언어로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주체적 의존과 회복을 통해 당당하게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드뷰티웍스 최에스더 회장과 신동석 MBC국장, 김형중 대표의 축사가 있었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안내

은혜와진리교회 부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는 결혼 적령기 크리스천 미혼 남녀가 주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돕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께서 기뻐하시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감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에 신청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출하신 서류 및 개인 정보는 담당자만 볼 수 있고 비밀이 보장되며, 일체의 비용도 없습니다. 본교회 성도는 물론 본교단 산하 교회 성도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 상 : 결혼 적령기 남녀 성도
- 신 청 : ㉠ 센터(안양성전 행복한결혼정보센터)에 직접 신청
㉡ 각 성전 교구장 통해 신청
㉢ 은혜와진리교회 홈페이지(www.gntc.net) 통해 온라인 신청
- 상담시간 : 매주 주일 오전 11시~오후 6시
매주 수요일 낮 12시~오후 6시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458-5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 사무실 031-422-3735, 상담소장 010-4377-2842)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군서교국(국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해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메말라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화가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기들을 좀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 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과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 줄 수 있는 종교서적·설교집, 신앙잡지,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QT 책 등—군생활 속에

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가 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시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신 한 권의 책이 이 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로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국 국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군선교국 차장 김상기 목사 (010-9040-4562)

보내실 곳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1905
e편한세상 103/801

임동진 모노드라마 ‘그리워 그리워’

연기 인생 50년, 임동진 목사 연극으로 돌아온다



따뜻한 감성을 가진 배우 임동진이 연기인생 50년을 맞아 오랜만에 연극 무대로 돌아온다. 목사 은퇴 후 10 년만에 지난 해 TV드라마 ‘징비록’으로 배우로서의 활동을 재개한 이후 첫 행보다. 특히 이번에 출연하는 연극 ‘그리워 그리워’는 모노드라마로 처음부터 끝까지 임동진 배우 홀로 이끌어가는 무대가 될 예정이다.

그의 이름을 걸고 모노드라마로 관객들을 만나는 것은 처음인 만큼 그의 연기 인생 50년의 총체를 느낄 수 있을만한 혼신의 연기가 기대된다.

임동진 모노드라마 ‘그리워 그리워’는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무심하게 지내는 가족간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를 통한 서로의 이해, 그리고 화해를 이끌어내기 위한 이야기이다.

OECD 국가 중 이혼율 1위의 기록이 말해주듯 우리 사회의 많은 가정이 위기에 처해있으며, 게다가 중년 부부들의 황혼이혼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극단 예맥의 대표이기도 한 배우 임동진은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써 뒤를 돌아보며 자기 고백의 시간을, 그로 인한 치유의 시간을 함께 했으면 하는 뜻에

서 이번 공연을 오래 전부터 구상해왔다고 전했다.

임동진 배우는 이번 무대에서 손녀딸의 결혼식을 앞둔 70세 ‘서진우’ 역할을 맡았다. 이 시대의 ‘아버지’ 모습으로 분한 그는 극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무대에 와 있는 것 같은 사실적인 연기를 선사할 것이다. 무대의 배경은 ‘서진우’가 혼자 사는 아파트 내부가 주가 될 것이며, ‘서진우’의 삶과 감정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무대가 될 예정이다.

무대디자인과 조명디자인에는 각각 윤미연 디자이너, 김영빈 디자이너가 맡았으며 창작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의 오은희 작가가 대본에 참여했고, 최병로 연출과 함께 임동진 배우 또한 협력연출로 나선다. 총괄기획에 한국기독교문화예술인총연합회 장현일 상임이사과 송광업 총괄프로듀서가 맡는다.

임동진 모노드라마 ‘그리워 그리워’는 오는 5월 9일부터 삼성동 KT&G 상상아트홀에서 공연되며, 인터파크 티켓 사이트에서 4월 8일 금요일부터 예매가 가능하다. 티켓장가는 R석 6만원, S석 4만원. 프리뷰할인 30%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문의 컬처미인 1566-5588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이 시대 꼭 필요한 전도법

‘예수께서 나와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8-20)

교회에 다니면서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듣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알면서도 쉽게 전도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다니며 각종 세비나에 참여하며 성도 간에 교제하며 지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전혀 기독교를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고 늦게 주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여러가지 고난을 통해 주님을 영접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하였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환경은 별로 나이지지 않은 모습이었고 이것이 가족 영혼 구원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시때는 형제들이 거의 주님을 영접하였으나 친정은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어려운 환경 속에 내가 고생하는 모습으로 보여서 제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에 대해 말하면 그냥 위로 차하는 말로만 여겼습니다. 그것이 항상 저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늦게 신화를 하고 개척교회를 시작하였지만 전도에 대해서는 남편이나 저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던 중 아세아신학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도과정에 등록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박영수 목사의 가족세트전도에 대한 특강을 들었고, 박영수 목사와 함께 전도 실습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시간에 ‘내가 무엇을 했느냐? 한 생명을 구했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실 때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이론이 아닌 현장전도에 대해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접기도전도’이고 ‘능력전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어디에서나 장소에 상관없이 길이나, 버스정류장, 각종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그분들 머리에 손을 얹고 다소는 강권적으로 안수기도를 통해 영접기도를 하게 하는 목사님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전국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 아멘 -

동영상: <http://blog.naver.com/by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민주주의와 자유 지킨 4.19 희생자 위로 추모

4.19혁명 제56주년 기념 제34회 국가조찬기도회

4.19혁명 제56주년 기념 제34회 국가조찬기도회가 지난 4월 18일(월) 오전 7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려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자유, 정의와 인권을 위해 온 몸과 마음을 바친 4.19혁명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추모했다.

준비위원장 박해용 장로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제34회 4.19혁명 국가조찬기도회는 대화장 김영진 장로(4.19선교회 상임고분)의 개회사, 이상형 사관의 개회기도, 김은혜 교수의 구약 성경봉독, 김민제 학생의 신약 성경봉독, 특별기도로 ‘대통령과 각계지도자를 위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통일을 위해’, ‘20대 국회와 민생경제를 위해’ 이혜훈 집사, 김한식 장로, 고종욱 장로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으며 서울장로성기단의 찬양,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찬상 2:4-7, 눅 1:49-53 말씀을 본문으로 ‘혁명을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대한민국이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4.19 혁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고 전하고 ‘이들 통해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지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경의 핵심적인 사상은 자유와 해방에 대한 여정”이라며 “여기 모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억하며 혁명의 정신을 다음 세대에게 전승하기 위해 힘써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해졌으며 고 김영삼 전대통령의 유훈 격려사를 김덕룡 이사가 전했으며 박원순 시장의 축사, 고 김영삼 전대통령에게 4.19혁명 특별봉사대상이 헌정되었다.

통일을 위한 호소문을 4.19선교회 송태홍 부회장이 낭독했으며 준비위원장 박해용 장로의 인사, 김태

규 원로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고 참석자들 모두는 4.19의 노래를 합창하며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온 몸과 마음을 바친 4.19혁명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추모했다.

4.19 선교회 및 4.19 혁명 국가조찬기도회는 1980년 4월 4.19부상 국가유공자 박해용을 중심으로 4.19 혁명 제20주년 기도 모임을 시작하면서 본격화 됐다. 1983년 4월18일 제1회 4.19 혁명 국가조찬기도회를 정관제 4.19 관련인사 300여 명이 광화문 코리안호텔에서 갖는 등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2회 찬송가페스티벌 막오른다

한국교회합창연구회 주최, 오는 4월 30일

한국교회합창연구회(회장 공윤팔)가 주최하는 제2회 찬송가페스티벌이 오는 4월 30일(토) 오후 6시 서울영락교회 베다니홀에서 열린다.

(주)복음신문·크리스찬연합신문·극동방송·CTS-TV복음방송·(사)한국기독교문화예술원이 후원하는 이번 찬송가페스티벌에는 성광교회·산성교회·새문안교회 찬양대를 비롯한 서울 합창대학 콘서트콰이어·크리스찬코랄·장로중앙

단·래위 아카데미콰이어·아무르 합주단이 출연해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번 찬송가페스티벌은 순수찬양이 상실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가 좀 더 순수하고 소박한 찬송을 부를 수는 없을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하늘나라의 찬양을 이상으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드리며 찬송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위대한가를 알리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각 출연팀이 3곡씩을 부르게 된다.

제2회 찬송가페스티벌을 주최하는 한국교회 합창음악연구회는 장구예배까지 파고든 CCM과 복음성가 등 예배찬양에서의 문제점이 심각한 오늘날 이같은 문제를 연구해 바른 찬양문화를 확립하고자 설립된 모임으로 매년 성가대 지휘자들과 반주자들을 위한 세미나, 합창페스티벌을 통해 한국교회에 올바른 찬양보급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010-5180-2621)

남일공예

50년 전통의 남일공예입니다.

남원 전통상, 목기, 교자상, 찻상, 병풍 판매합니다.

본 제품들은 남일공예에서 직접 생산하여 도매로 판매합니다.

좋은 원목으로 모든 공정을 남원에서 직접 제작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교회 예배상 주문제작

생산자 직거래라 비용이 저렴합니다

오시는 길 전북 남원시 쑥고개로 219(어현동 470-16)

상담전화 063-632-3332, 8838 / 010-3651-7838 택배판매 가능

피부 · 성형 · 비만 클리닉

연세나눔의원

진료내용

1. 색소클리닉
2. 여드름클리닉
3. 흉터클리닉
4. 비만클리닉
5. 성형외과(쌍꺼풀수술, 코수술, 지방흡입, 지방이식)

월 · 수 · 금요일 **야간진료** 오후 9시까지

(02) 2666-3616 우장산역 4번출구 미즈메디병원 옆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701-10 호경빌딩6층 www.shareclinic.com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역 감당

걷기동우회

안성 죽주산성 등반하며 심신 단련 스포츠선교위원회 산하 걷기동우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목회자들이 한마음으로 결성한 스포츠선교위원회(위원장 정석현 목사) 산하 걷기동우회(회장 홍현철 목사) 회원들은 지난 4월 14일(목) 경기도 안성 죽주산성을 등반하며 심신을 단련했다.

먼저 직전총회장 김용덕 목사를 비롯 증경총회장 유봉수 목사 등 동우회 회원들은 안성 평강교회(담임 정석현 목사)에 모여 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회장 홍현철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조은혜 목사의 대표기도, 최남성 목사의 설교 순

으로 이어졌다.

최 목사는 마 24:45-47 말씀을 본문으로 '충성된 종'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좋은 주인이 알아주는 알아주지 않든, 때를 따라 맡겨진 일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자로서, 가장 연약한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임을 인식하고 먼저 실천하고 분이 되는 충성된 종으로서 영의 양식을 나누는 섬김의 자세를 견지할 것"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제목기도 시간에는 박문수 목사가 'WCC,

WCA 종교다원주의 반대를 위해, 정영진 목사가 '동성애반대를 위해, 박흥렬 목사가 '남북통일을 위해, 임영광 목사가 '종회와 각 교회 부흥발전을 위해' 각각 기도를 인도했으며 정석현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회원들은 2부 행사로 안성평강교회(담임 정석현 목사)에서 정성껏 준비한 오찬을 함께한 뒤 '안성 죽주산성'을 등반하며 심신의 피로를 풀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속에서 사람 나눔의 시간을 갖고 다음 모임을 기약하며 각자의 목회지로 향했다.



여교역자국



인내와 순종 하나님 의지하여 크게 쓰임받기를...

여교역자국 부산서 임원회, 부산지역 관광명소 돌아보며 사랑의 교제



국장
박정신 목사

여교역자국(국장 박정신 목사)은 지난 4월 12일(화) 오전 11시 부산 순복음반송교회(담임 한순남 목사)에서 임원 모임을 갖고 여교역자국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교단과 회원들을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며 나아가기로 결의하였다.

임원회의에 앞서 새롭게 단장하고 이전된 아름다운 순복음반송교회 성전에서 1부 예배를 드렸다. 여교역자국장 박정신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김순자 목사의 기도, 여교역자국 고문 정부용 목사의 설교, 최영희 목사의 헌금기도, 박종근 목사의 색소폰 연주전양, 부산지방회 증경회장 고영권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은혜가운데 드렸다.



고문 정부용 목사는 사 43:1-7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어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들어 사용하신다"고 전하고 "여교역자국 회원들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될 것"을 강조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여교역자국 임원들은 모든 순서를 마치고 순복음반송교회 담임 한순남 목사와 함께 부산지방회 여교역자들의 헌신적인 수고와 사랑이 담긴 섬김으로 부산지역의 유명한 관광명소를 돌아보고 특별히 준비한 맛있는 음식을 함께 하며 즐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정기지방회 예수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목회자

총서지방회

총서지방회(회장 차홍식 목사)는 지난 4월 4일(월) 아산 순복음교회(담임 차홍식 목사)에서 정기지방회를 개최하고 한 회기동안 지방회를 섬길 새로운 임원진을 선임하고 각종 회무를 처리하였다.

이날 예배는 총무 김영권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재무 오수경 목사의 기도, 그리고 지방회장 차홍식 목사의 설교와 교단총회장 장동용 목사의 헌금기도와 축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차 목사는 골 1:24-29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의 비밀'이

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복음의 비밀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런데 복음의 비밀을 잘 알고 있는 목회자들이 복음의 비밀을 물질과 바꾸고 명성과 바꾸어 자신의 사욕을 채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깨어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목회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이어 열린 정기지방회의 임원선출에서는 전년도 임원들을 그대로 유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아산순복음교회에서 마련한 풍성한 오찬을 나누면서 기하성에서 복기한 예언에 있는 네복음교회 정용목 목사와 아름다운 교제와 덕담을 나누면서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전도에 헌신 평내순복음교회 교회창립 11주년

경기중앙지방회

경기중앙지방회(회장 임흥택 목사) 평내순복음교회(담임 박영수 목사)는 지난 4월 17일(주일) 교회창립 11주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제직임직예배를 드리며 마지막 때 땅끝까지의 복음전파를 위한 헌신을 다짐했다.

이날 말씀을 전한 담임 박영수 목사는 '가서 제자 삼아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감사드리다"고 고백하고 "전 성도들과 함께 한국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가족세대전도 캠페인(125기) 사업도 새롭게 전개하며 지속적으로 헌신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임직식에서는 권사 김지영, 집사 이순영, 임영만, 고민규, 천병길 등이 직분을 받고 전도부장 천병길, 구역장 이지선 성도가 임명되었다.

성도들은 24구역, 지역복음화와 한국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목양시평

한국교회연합

정쟁 접고 국익, 민생위한 대화 타협의 정치를

4.13 총선은 낡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꾸짖음이었다. 유권자들은 국익을 의식하지 않는 독선과 불통의 정치에 등을 돌렸다. 여당은 아랑의 분열을 반기며 대립과 정쟁에 몰두한 나머지 오늘 결과물 초래했다. 여당을 만들어 준 것은 계파가 아닌 국민인데 국익은 안중에 없고 계파싸움만 하다가 모든 걸 잃었다. 이번 총선은 한마디로 국민이 돌아서면 여당도, 정권도 한순간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보여준 것이다.

더민주당은 새누리당을 누르고 제1당이 되었다. 그렇다고 승리를 자축할 때는 아닌 것 같다. 국민이 수권능력을 보고 지지했다기보다는 여당에 실망한 민심이반의 덕을 본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는 몰표를 받았지만 전통적인 지지기반을 잃은 것이 그 증거이다.

국민의당의 약진은 분명 양당 구도 하에 대립과 정쟁에 신물이 난 국민들의 새로운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당이든 개혁과 변화를 이루지 못하면 언제든 민심은 떠나게 되어있다. 기존의 여야 정당들은 양당체제에 안주해 개혁과 변화보다는 대립, 정쟁에 골몰한 데 대한 유권자들의 질타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기독자유당은 많은 기대와 성원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원내 진출에 실패함으로써 현실정치의 높은 벽을 실감했다.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여주듯이 기독교정당마저 하나되지 못함으로써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이슬람 반대를 염원한 지지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다.

그러나 군소정당으로서 여러가지 불리한 현실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것은

그만큼 교계의 당면 이슈를 현실정치에서 실현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드러난 것이기에 앞으로 더욱 희망적이라 할 수 있다. 교계는 비록 기독교정당의 원내 진출이라는 소망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기존 여야 정당들의 기독교원들을 통해 한국교회가 요청해온 기독교적 선한 가치가 구현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간 대립, 투쟁에 신물이 나 있다. 따라서 4.13총선에서 나타난 3당체제로의 변화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 대한 국민적 염원이 표로써 드러난 결과이다. 제발 싸우지 말고 국익, 민생을 위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2016. 4. 14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평화통일 위한 구국기도회 열려

한국교회 원로·은퇴 목회자 체육대회 개최

평화통일을 위한 구국기도회 및 한국교회 원로·은퇴 목회자 체육대회가 지난 4월 14일(목) 잠실학생체육관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사회 임원수 목사, 총재 한은수 감독, 준비위원장 김진옥 목사, 대표회장 겸 추진위원장 이주태 장로) 주최로 진행됐다.

한국 기독교 130년 역사상 최초로 열린 이번 한국교회 원로·은퇴 목회자 체육대회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행사로 3천여 명의 원로목회자들이 참여하여 초대형 체육대회로 치러졌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교회의 오늘이 있기까지 헌신한 원로목회자에 경료요천 사상을 고취시키고 인식을 개선하는 등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원로목회자들은 체육대회에 앞서 나라의 현 상황인 총체적 어려움으로 위기국면임을 감안하여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리자는 요청이 있어 평화통일 구국기도회로 체육대회에 앞서 한바탕되어기도했다.

구국기도회에서는 주찬양전교단 최덕선 전도사와 옹기장이가 함께 원로목회자들이 즐겨 불렀던 찬양들로 무대를 꾸몄다. 기도회는 김진옥 목사(한국기독교인문사후원재단 상임대표회장) 사회로 지덕 목사(원로후원회 상임이사)의 대표기도, 이명일 목사(원로후원회 복지위원)의 성경봉독 후 피종진 목사(후원회 명예총재)가 출 4:19-20 말씀을 본문으로 '모세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피 목사는 설교를 통해 "지팡이를 쥔 손에서 놓지 않았던 모세처럼, 우리 원로·은퇴목사님들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손에서 지팡이를 놓지 말고 120년까지 장수하시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오관석 목사(원로후원회 고문)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특별기도 시간에는 '나라의 안정과 경제 성장을 위해',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 '한국교회의 경신과 성장을 위해', '북한의 핵 포기과 평화통일을 위해', '원로후원회 발전을 위해', '북한 동포와 어린이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병두 목사(원로후원회 상임이사), 김성직 목사(영기도기독교교총연합회 중경총회장), 김진호 목사(원로후원회 상임이사), 이용규 목사(원로후원회 상임이사), 송용필 목사(한국기독교교포초총연합회 대표회장), 박수광 목사(국제푸른나무 이사장)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다.

이어서 헨델의 '메시아' 코러스 '할렐루야' 부분을 모두 함께 특별찬양했고, 2부 순서가 이어졌다.

임원수 목사(원로후원회 이사장)는 "우리 원로목회자님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고, 체육대회를 통해 건강을 증진하며 교회를 초월하여 하나님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개회사에 한은수 감독(원로후원회 총재), 인사발 준비위원장 김진옥 목사, 대표회장 이주태 장로, 이

상모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명예회장)의 취지문, 이시회장(대한노인회)의 격려사, 정의화 국회의장의 축사가 각각 있었으며 정 의장은 축사에서 "과거 민족의 고비 때마다 대한민국과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기도로 국난 극복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한국교회와 원로목사님들이 먼저 하나 되고 나라와 사회의 갈등이 치유되며, 남북 화합의 물꼬를 더 가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체육대회는 분세광 목사의 기도와 박진설 목사의 진행 설명, 김동원 목사(원로후원회 상임이사)의 선수선서, 정주호 집사의 준비운동 인도 후 이상용 씨와 박진설 목사(대회 준비위원) 사회로 진행되어 창팀과 백팀으로 나누어 그리운드 골프와 공다트, 순가락 계주와 큰 공 굴리기, 미니 볼링과 투호, 카드 뒤집기, 바구니에 공 넣기 등 원로목회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종목들로 구성됐다.

모든 행사는 한은수 감독의 폐회사와 기념촬영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체육대회에는 교령의 원로목회자들을 감안해 대규모 전문 의료진이 대기하는 등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진행됐다.

사설

기독교정당과 성도의 입장

기독교 목사·장로들이 모여 정당을 만들고 기독교 정당이란 이름으로 기독교인들의 몰표를 호소하는 일이 이번 4.13총선과정에서 또 일어났다. 두 개의 기독교 정당이 정당 득표를 통해 비례대표를 내겠다고 나섰으나 유효투표 득표를 3%에 미치지 못하여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기독교 교리 실현을 중심 가치로 하는 정당이 운동을 계속하면 향후 3% 이상의 득표를 얻고 일부 당선자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매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정 종교의 교리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은 시도되어서도 안 되고 나와서도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란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교회는 교회요, 국가는 국가다. 목회자가 설립의 중심이 되고 그 설립목적의 핵심이, 기독교 교리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은 그 설립 취지부터 우리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 제20조는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규정하

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정 종교교리나 이념을 주된 정권 장악 또는 정치적 행동 실현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말이다.

기독교계가 기독교 교리를 정치 이념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당을 창당하여 선거운동을 한다면, 다른 종교를 역시 각자의 종교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정당을 만들어 선거자들을 결집시키는 정치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여타 종교 집단들이 자신들의 포교이념을 정치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정당을 만들어 각급 선거에 뛰어든다면, 그 사회는 종교 대립이 일어나기 십상일 것이고, 대한민국의 한평 정산에도 맞지 않을 것임은 물론이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마 22:21)고 하신 말씀과, 바울 사도가 롬 13:1-7에 선포한 말씀은 흔히 세상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 세속 정부와 교회의 관계를 가르치는 신앙적 지침으로 삼는다. 일부 목회자들은 이점을 심사숙고하여, 정당을 만들어 활동함으로써 성도들을 훈련케 하는 일을 삼가해야 마땅할 것이다.

차별금지법·동성애법·이슬람 관련법 제정 막아야

4.13 총선이 끝나고 여소야대의 냉엄한 현실 앞에 한량들의 저마다 꿈꾸는 정치구도가 각양각색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지 못한 정당은 뒤처리를 맞았다. 총선을 준비하는 정당의 태도를 보며 국민들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당은 국민의 신뢰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각 정당들은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준엄한 심판으로 받아들이고 약속을 지키는 정치, 민의를 저버리지 않는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로 매진할 때 어느 당이든 국민의 신뢰 회복은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기본과 원칙, 정치와 신뢰의 정치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4.13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의 대표적 인물들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먼저 새누리당 김부성 대표는 지난 2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나라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3당 대표 초청 국회 기도회>에 참석하여,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인권관련법에 대해서는 여러분(기독교

계)이 원하는 대로 당에서도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인 박영선 의원도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이슬람 인권 관련법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특히 동성애법은 자연과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새누리당 김부성 대표는 지난 4월 9일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에 대한 선거운동 유세에서, 경기 용인정에 후보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후보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님들을 하틀러에 비유하지 않았느냐"며, 그를 가리켜 "제 정신이 아니지 않느냐"고 하였다. 또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느냐" 반문했다.

이번 4.13총선에 나선 새누리당 다수의 후보들도 '동성애는 인권을 파괴한다' 다른 건물로라도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당한 말이다. 약속을 지키는 정치지도자들의 소신있는 입장은 양당이 있기 바란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 발행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150-1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일 5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청정지역 가평에서 비가림으로 재배해 저온 착즙한

‘운악산포도즙’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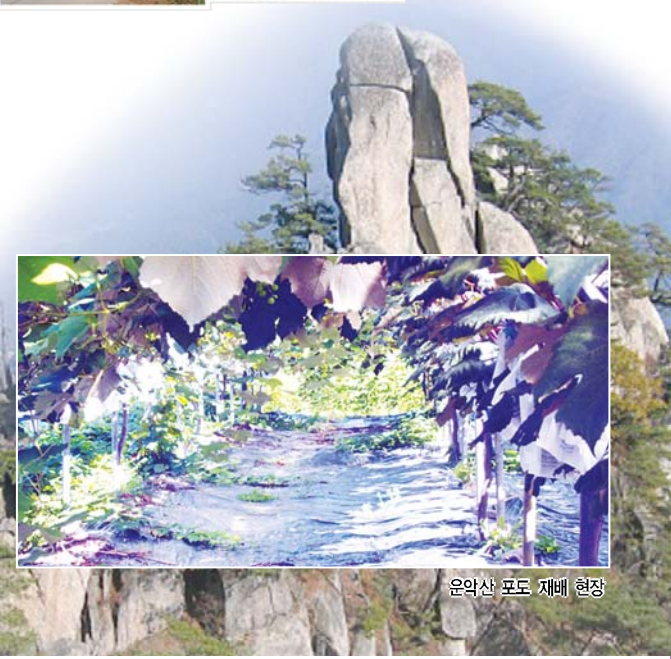
공기 좋고 물 맑은 청정지역인 가평에서 비가림으로 재배하는 ‘운악산 포도’는 산간 고랭지 포도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차이가 심하여 당도가 높고 상큼한 맛과 향이 높은 ‘우수한 포도’입니다. 저희 운악산포도작목반에서는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에서 재배되는 ‘운악산 포도’를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게 자체적으로 설치한 ‘저온착즙기’에서 착즙, 밀봉·포장하여 소비자 분들께서 믿고 드실 수 있도록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포도즙 효능 : 피로회복, 피부미용 ※목회자님·교회·단체 특별우대

저온착즙-운악산포도즙	저온착즙-운악산포도즙	저온착즙-운악산포도즙	저온착즙-운악산포도즙	저온착즙-운악산포도즙	저온착즙-운악산포도즙
110ml 30봉 1박스(택배비 포함) 28,000원	110ml 50봉 1박스(택배비 포함) 43,000원	110ml 30봉 2박스(택배비 포함) 50,000원	110ml 50봉 2박스(택배비 포함) 80,000원	110ml 30봉 3박스(택배비 포함) 80,000원	110ml 50봉 3박스(택배비 포함) 120,000원

031-584-3806, 010-2225-3808
평일 : 오전9시~오후6시 토요일 : 오전9시~오후3시
계좌번호 : 농협 351-0663-7414-03(예금주이봉기)

운악산 포도즙 위치 : 경기도 가평군 하면 하판리 15번지
하판리 영농조합법인 전화 : 031)584-3806



운악산 포도 재배 현장

제66회 구역장 세미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열려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여 구령의 열정과 사명감 충만

은혜와진리교회 제66회 구역장 세미나가 4월 11일(월)과 12일(화) 두 차례 성전별로 나누어 안양성전과 전원성전에서 성대하고 은혜롭게 열렸다.

구역장들은 주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은혜와 능력의 말씀을 받아 구령의 열정과 헌신의 자세를 새롭게 하여 우리 교회의 목표를 이루는 일에 깊이 참여하고 헌신하기 위해, 열매 맺는 복음 전도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였다.

세미나는 다른 성전과 교구의 동료 구역장들을

함께 축복하며 격려하는 시간, 전도상 시상식, 당회장 조용목 목사의 말씀과 성령충만을 위한 기도 순서로 진행되었다.

조용목 목사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 특강을 통해 구역장들의 믿음을 북돋워 주고 구역장 직임에 대한 사명감으로 충만케 해주었다.

조용목 목사는 죄악이 인류에게 들어온 사건의 근원 부터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성의 결여로 말미암은 것이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죽어간 원인의 근저 또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었거나 없었던 데 있었다면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 궁극적인 행복과 불행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의 깊이에 달려있음을 역설하였다.

조용목 목사는 믿어닥친 재난 중에도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던 욥,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 결핍과 곤란 중에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

며 오�히려 기뻐하며 찬송하였던 하박국의 경우를 예로 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떠한 신뢰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성도, 그 어떤 위협과 핍박, 고난과 역경, 결핍과 곤란이 닥칠지라도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해 추호의 의심 없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연합한 신자들이 교회와

교역자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회의나 시험에 드는 일이 없이 전적으로 신뢰하여 즐겁게 교회생활을 하도록 잘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구역장이 되도록 당부하였다.

특강에 앞서 진행된 전도상 시상식에서 당회장 조용목 목사는 910명의 남녀구역장들에게 영예로운 전도대상과 전도상을 수여하며 치하해 주었고, 수상한 구역장들은 동료 구역장들의 축하를 받으며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구역장 세미나가 열린 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5차 정기총회 소집 공고

본 교단 헌법 제8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제65차 정기총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총회일자 : 2016년 5월 16일(월)
2. 등 록 : 5월 16일(월) 오전 11시
3. 개회예배 : 5월 16일(월) 오후 1시
4. 사무총회 : 5월 16일(월) 오후 2시
5.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2
6. 참석대상 : 총회 대의원(교역자, 장로)

2016년 4월 2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목사 진 등 용

5월 15일(주일)을 총회주일로 지킵시다!!!

- 총 회 주 일 _ 2016년 5월 15일(5월 첫째주일)
- 대 상 _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산하 지방회 회원교회
- 총회주일안내 _ 전국 각 교회에서 홍보 현수막 및 홍보전단, 주보 등을 활용해 교단의 성령충만한 사역 운동을 알리고 지역사회 복음화의 계기를 만드는데 활용토록 함.
- 헌 금 구 분 _ 특별헌금을 교회 형편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80331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진 등 용
총 무 목사 김 병 목